지역 소식통

부안군, 보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부안군이 2017년 상반기 인사에서 저출산 대응 T/F팀을 신설하고 아이 낳고 보육하기 좋은 도시 부안 만들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응 T/F팀은 팀장과 팀원 등 총 3명 규모로 신설됐으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의 저출산 관련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한 부안군 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중심으로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시책 발굴·추진,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임신·출산·보육·공교육의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정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임산부·신생아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책임 강화, 양성평등을 위한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대응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 개발은 물론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인식개선을 통한 출산율 회복을 다양한 교육활동과 함께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아이 낳고 보육하기 좋은 도시 부안만들기 운동' 등에도 앞장서 현재 1.17명인 합계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6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저출산 대응 T/F팀 신설과 함께 다양한 출산율 향상 정책을 발굴·추진해 저출산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출산율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벼 병해충방제지원 회의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은 지난 7일 면장실에서 성덕면 벼 병해충방제지원사업 자체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자체협의회는 위원장 신형순면장으로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농촌지도자회장, 나시이장, 석동1이장, 남포1이장 위원 6인으로 구성하여 벼 병해충 적기 방제 지원을 위한 방제약제 배정방법, 방제농약 공급업체 2개소이내 선정 및 방제약제 3개이내 선정 등 방제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였다

벼 병해충방제지원사업은 줄무늬잎마름병(애멸구),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 사전방제 육묘상자처리제(입제) 농약대 지원사업이고 성덕면 사업량이 365ha에서 845ha로 작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하였고 보조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되어 1봉당 8,000원 기준으로 4,800원의 보조지원이 된다.

강순안 이장협의회장은 벼 병해충방제지원사업으로 적기에 방제하여 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운행

정읍시외버스터미널서 전북혁신도시 경유 인천국제공항 도착 6회씩 운행

지난 7일부터 정읍~인천국제공항간 시외버스 운행이 시작됐다.

정읍-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시외버스(직행, 우등버스)가 하루 6회씩 운행된다.

이로써 정읍시민은 물론 고창, 부안, 순창, 전남 장성과 영광 등 인근 도시 주민들의 인천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불편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정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인천국제공항행 시외버스는 전북혁신도시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정읍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시간은 ▲2:40 ▲3:40 ▲5:40 ▲7:40 ▲10:40 ▲13:00이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읍으로 출발하는 시간은 ▲7:50 ▲9:40 ▲11:50 ▲14:40 ▲16:30 ▲18:20이다.

요금은 성인은 3만원이고 중·고등학생은 20%, 초등학생은 50% 할인된다.

예매는 인터넷이나 터미널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하고, 여객사는 호남고속과 경기고속이다. 소요시간은 3시간 50분이다.

시는 이번 시외버스 운행에 따라 터미널 인근에 있는 연지공영주차장(유료)과 4개의 무료 주차장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외버스 이용객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시는 특히 "연지공영주차장에는 관리원이 근무하고 CCTV가 설치돼 있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 요금은 30분 무료, 1시간 500원, 1일 5천원, 월 정기 주차권은 3만원이다. 단, 경차와 국가 유공자, 장애인 차량, 저공해 표지 차량 등은 50~60%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터미널 주변 주차 공간 확보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는 정읍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갈 경우 정읍역에서 인천국제공항행 KTX(1일 2회)나 정읍-인천터미널 간 직행버스(1일 3회)를 이용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의회, AI 재발생 긴급 간담회 실시

"방역대 해제요건 탄력적 운영방안 등 관계 중앙부처에 강력 건의해야"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지난 7일 의장실에서 용지면 산란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진영) 회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갑작스런 AI 재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청취한 후 이승복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긴급 간담회를 실시하고 방역대 해제요건의 탄력적인 운영방안 등을 관계 중앙부처에 강력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용지면 산란계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지난해 발생했던 AI 살처분이 완료되고 30일이 경과하여 6일 방역대가 해제되면 본격적으로 병아리를 입식하려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등 입식준비를 마쳤으나 방역대가 해제된지 하루도 안돼 입식이 불허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회원들은 방역대도 틀린데다가 전국적으로 AI가 창궐하지 않는데도 AI방역대를 심각단계인 반경 10km내로 적용하여 용지면 산란계 농가까지 입식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용지면 축산농가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방역대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나병문의장은 면담 이후 지역구 의원들 및 이승복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장들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어 용지 축산농가의 입장을 전달하고 해결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이승복 시장권한대행이 직접 농림부장관에게 김제시 축산농가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방역대 해제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용지면 산란계 농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 떡국 나눔 봉사활동 진행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정창섭)와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훈)는 8일 김제제일교회 온누리관에서 2017 신년맞이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 봉사는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의 밥차를 이용해 14개 시·군에 릴레이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은 교월동과 김제제일사회복지관의 협조로 어르신 및 지역주민 300여명을 모시고 떡국을 나누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대한적십자사 김제지구협의회 회원 30여명이 참여하여 직접 떡국을 끓이고 대접하여 드렸으며 하모니카팀의 문화공연도 준비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창조농업 소득지원 신청

부안군은 고소득 신규품목을 중점 육성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려고 2017년 창조농업 소득지원사업을 오는 2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를 위해 군은 총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군비 50%, 자담 50%으로 앵커품목 육성을 위한 창조농업 소득지원사업은 신규 및 기존 특화작목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접수 후 읍·면에서 사업비 1억원 한도 내로 1차 선정한 뒤 부안군에서 사업성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 체 등록을 한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이며 지원품목은 성장가능성이 큰 품목으로 규모화·조직화해 향후 6차 산업과 연계하기가 가능한 품목이다.

이동근 농업경영과장은 "창조농업 소득지원사업이 부안군의 앵커 품목 육성의 견인차 구실을 해 억대농가 300호 육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정읍시보건소-한의사회 업무 협약

6월 30일까지… 난임 부부 무료 지원 희망자 신청

정읍시보건소와 정읍시한의사회(이하 정읍한의사회)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손을 잡았다.

전통 한의약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하여 임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 올린다는 취지다.

관계 자료에 따르면 반복된 배아이식 실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방 치료를 한 결과 임신 성공률이 아주 높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와 정읍한의사회는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난임 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무료 지원 사업에 나서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 내 6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신청 자격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 접수일 현재 만 40세 이하 여성(※연령 기준은 신청자의 신청 월 기준으로 1977년 2월 이후 출생 자) ▲신청서 접수 당일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2017년 12월까지 정읍에 거주해야 함)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 ▲난임 진단서 제출자 (정부 지정 난임 시술 기관 또는 산부인과)이다.

희망자는 한방 난임 지료비 지원 신청서 1부와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정부 지정 난임 시술 기관 및 산부인과 전문의 발행),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주소가 별도인 경우에만 해당), 개인정보 동의서 1부를 갖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는 선착순으로 모두 15명을 선정해 4개월 동안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한약 투여와 함께 침과 뜸 등(1인 당 180만원 상당)의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난임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해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 내 출산율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보건소,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수칙 홍보

30초이상 손 씻기 등

부안군 보건소는 본격적인 개학철을 맞아 학생들의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수칙을 홍보하고 교사 및 학부모 등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손 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 발열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인플루엔자로 진단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고 해열제 복용 없이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학교(학원 포함)에 등교해야 한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사업 3월부터 실시

김제시는 생활권 주변 나무들의 건강한 생육과 무분별한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사업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컨설팅은 학교숲이나 복지시설, 전통사찰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생활권 나무에 산림병해충 발생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나무병원의 전문가를 통한 나무피해의 진단과 처방전을 발급 받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17개소를 선정하여 수목진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인은 전문가로부터 나무의 피해 원인에 대한 상담과 저독성 약제사용 등 정확한 진단을 받고 방제 적기에 방제하면 된다.

조종현 공원녹지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다양한 돌발해충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